

古詩歌의 題名

尹 榮 玉

〈目 次〉

- | | |
|----------------|--------------------|
| 1. 序 言 | 4. 高麗史 樂志 高麗俗樂의 境遇 |
| 2. 現傳 新羅詩歌의 境遇 | 5. 現傳 高麗詩歌의 題名 |
| 3. 三國 不傳詩歌의 境遇 | 6. 結 言 |

1. 序 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古詩歌에는 창작 당시에 題名이 붙여지지 않았거나 元來의 題名이 忘失되었거나 한 상태로 後代에 그 詩歌가 傳承되어진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의 存在事實이 認定되려면 名稱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作品이나 作品的인 事實을 記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一國의 帝王이었던 高句麗의 瑠璃王이 불렀다는 노래도 「三國史記」에서는 그 題名을 말하지 않았고, 隋나라 百萬大軍을 물리친 乙支文德이 隋將 于仲文의 降服을 받아낸 詩도 後代에 〈與隋將于仲文詩〉라고 題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름없는 一般民庶의 입에서 불리었던 노래야 記錄할 수 있는 識者層의 귀에 들리기도 어려웠을 터이니 어찌 그 이름인들 지어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지난 날 識者는 곧 治者라는 等式關係가 성립되었고, 또 治者는 “採聞風謠”하여 治民에 참고로 삼았으니 그러한 結果로 古詩歌의 一部나마 그 “存在事實”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古詩歌들은 어떤 原理로 題名되었던가를 살펴 現傳하는 詩歌의 理解의 方向을 設定하는 데 도움을 얻을까 한다.

2. 現傳 新羅詩歌의 境遇

여기서 現傳 新羅詩歌란 一然이 「三國遺事」에 採錄해 놓은 14首를 지칭한다. 이 作品들은 「三國遺事」에 題名되어 있는 것도 있고 後代의 研究者에 의해 題名된 것도 있다. 그 事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	梁柱東	趙潤濟	金思燁	李秉岐
1. 得烏幕郎	慕竹旨郎歌	慕竹旨郎歌	慕竹旨郎歌	得烏谷慕郎歌
2. 老人獻花歌	獻花歌	獻花歌	獻花歌	(老人獻花歌)
3. 安民歌	安民歌	安民歌	安民歌	安民歌
4. 讀者婆郎歌	讀者婆郎歌	讀者婆郎歌	讀者婆郎歌	讀者婆郎歌
5. 處容歌	處容歌	處容歌	處容歌	處容歌
6. 薯童童謠	薯童謠	薯童謠 (薯童歌)	薯童謠	(薯童童謠)
7. 盲兒得眼歌	禱千手觀音歌	禱千手親音歌 (千手大悲歌)	盲兒得眼歌	盲兒得眼歌
8. 良志使錫	風謠	風謠 (良志使錫歌)	風謠	(良志使錫)
9. 廣德嚴莊	願往生歌	願往生歌	願往生歌	願往生歌
10. 月明師兜率歌	兜率歌	兜率歌	兜率歌	(月明師兜率歌)
11. 爲亡妹營齋歌	祭亡妹歌	祭亡妹歌	爲亡妹營齋歌	爲亡妹營齋歌
12. 融天師彗星歌	彗星歌	彗星歌	彗星歌	彗星歌
13. 信忠柏樹歌	怨歌	怨歌	怨歌	柏樹歌
14. 永才遇賊歌	遇賊歌	遇賊歌	遇賊歌	遇賊歌

위의 趙潤濟의 경우 그의 「朝鮮詩歌史綱」에서의 題名 〈薯童歌〉 〈千手大悲歌〉 〈禱千手觀音歌〉 〈風謠〉 〈怨歌〉로 그의 「韓國文學史」에서는 修正하였다. 그 理由는 〈薯童謠〉는 童謠이며, 〈禱千手觀音歌〉는 觀音에의 祈禱이며, 〈風謠〉는 風謠이며 〈怨歌〉는 宮庭의 栢樹를 怨望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詩歌는 作品이 現傳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三國遺事」에서 一然이

다음과 같이 說話했기에 이 說話를 根據하여 題名한 것이다.

1. 初德烏谷慕郎而作歌曰……[得烏(谷)慕郎歌・慕(竹旨)郎歌]
2. 老翁……折其花^一亦作歌詞獻之……老人獻花歌曰……[老人獻花歌・獻花歌]
3. 然則爲朕作理安民歌……安民歌曰……[安民歌]
4. 朕聞師讀耆婆郎詞腦歌……耆婆郎歌曰……[耆婆郎(詞腦)歌]
5. 處容……乃唱歌作舞而退 歌曰……[處容歌]
6. 薯童……乃作謠 誘群童而唱之曰……乃信童謠之驗[薯童(童)謠]
7. 一日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盲兒得眼歌・禱千手觀音(大悲)歌]
8. 風謠云……[良志使錫・風謠]
9. 德嘗有歌云……(願往生 願往生)……[廣德嚴莊・願往生歌]
10. (月明師兜率歌)……明乃作兜率歌賦之……[(月明師)兜率歌]
11.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爲亡妹營齋歌・祭亡妹歌]
12. 〈融天師彗星歌〉……時天師作歌歌之……[融天師彗星歌]
13. 忠怨而作歌 帖於柏樹 樹忽黃悴……[信忠柏樹歌・怨歌]
14. 乃命() () () 作歌 其辭曰……[永才遇賊・遇賊歌]

위의 一然의 記錄에서 2. (老人)獻花歌 3. 安民歌 4. 讀耆婆郎(詞腦)歌 8. 風謠 10. 兜率歌 12. 彗星歌의 6首에는 一然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그 以前에 이미 題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風謠〉나 〈兜率歌〉는 固有名詞가 아니라 一般名詞로 類型的인 題名임을 알 수 있다. 〈獻花歌〉나 〈彗星歌〉는 特殊한 狀況에서 由來한 題名이며, 〈安民歌〉와 〈讀耆婆郎歌〉는 意圖로 말미암은 題名이다. 〈讀耆婆郎歌〉의 경우는 景德王이 〈讀耆婆郎詞腦歌〉라고도 하였으니 이것은 意圖에 類型까지를 複合한 題名이 된다.

薯童이 作謠하여 群童을 꺾어 부르게 하였고 善花가 “童謠의 驗을 믿었다.”고 한 것을 〈薯童(童)謠〉라고 題名한 것은 狀況과 類型的을 複合한 것이라 하겠다. 〈處容歌〉는 樂에 관한 文獻인 「樂學軌範」 「樂章歌詞」 등에도 〈處容歌〉로 題名되어 있지만 狀況의인 題名인데, 〈(永才)遇賊(歌)〉도 또한 그러하다.

〈得烏谷慕郎歌・慕竹旨郎歌〉 〈盲兒得眼歌・禱千手觀音歌〉 〈願往生歌〉 〈祭亡妹歌〉 〈怨歌〉는 意圖에 의한 題名이다.

위에서 밝혀 본 바와 같이 「三國遺事」에 傳하는 新羅詩歌 14首는 類型 狀況 意圖나 狀況이나 意圖에 類型이 複合되어 題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詩歌가 現傳하고 詩歌生成의 由來가 밝혀져 있음으로 作品에 合當한 題名이 容易했을 것이다.

3. 三國의 不傳詩歌의 境遇

다음은 三國의 不傳詩歌의 題名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學論하는 對象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樂志」 「增補文獻備考」에 收錄된 것으로 한정한다. 우선 作品을 列舉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麗史樂志	文獻備考
1. 兜率歌	儒理王代	○	○		
2. 會蘇曲	〃	○			○
3. 勿稽子歌	奈解王代		○		
4. 憂息曲	訥祗王	○			○
5. 實兮歌	眞平王代	○			
6. 奚論歌		○			
7. 陽山歌	太宗代	○			○
8. 無導	〃		○	○	○
9. 身空詞腦歌	元聖王代		○		
10. 鸚鵡歌	興德王代		○		
11. 玄琴抱曲	景文王代		○		
12. 大道曲	〃		○		
13. 問群曲	〃		○		
14. 繁花曲	景哀王代				○
15. 亡國哀歌	敬順王代		○		
16. 東京	未詳			○	○
17. 安康歌	〃			○	○
18. 利見臺歌	〃			○	○
19. 木州歌	〃			○	○
20. 余那山	〃			○	
21. 長漢成	〃			○	

22. 方等山	〃	○	○
23. 來遠成	高句麗	○	○
24. 延陽	〃	○	○
25. 溟州	〃	○	○
26. 裨雲山	百濟	○	○
27. 無登山	〃	○	○
28. 智異山	〃	○	○

1. 是年民俗歡康 始製兜率歌 此歌樂之始也(史記) 始作兜率歌 有嗟辭詞腦格(遺事) [兜率歌]
2. 是時負家一女子起舞嘆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會蘇曲(史記) [會蘇曲]
3. (勿稽子)悲竹樹之性病 寄托作歌 擬溪澗之咽響 扣琴制曲(遺事) [勿稽子歌]
4. 會兄弟 置酒極歡 王自作歌舞以宣其意 今鄉樂憂息曲是也(史記) 會兄弟 置酒極歡 王作歌以宣其志 俗謂之憂息曲(文獻備考) [憂息曲]
5. (實兮)遂不言而往 作長歌見意(史記) [實兮歌]
6. 時人無不哀悼 爲作長歌吊之(奚論)(史記) [奚論歌]
7. 金歆運……營陽山下……殺三數人而死……時人聞之 作陽山歌以傷之(史記) [陽山歌]
8. (元曉)偶得偶人舞弄大伽……因其形製爲道具……命名無尋 仍作歌流于世(遺事) 無尋……唱無尋詞……其歌詞多用佛家語且雜以方言 難於編錄(麗史) [無尋]
9. (元聖)大王誠知窮達之變 故有身空詞腦歌(遺事) [身空詞腦歌]
10. (鸚鵡)乃哀鳴而死 王(興德)作歌云 未詳(遺事) [鸚鵡歌]
11. 12. 13 國仙 邀元郎 響昕郎 桂元叔宗郎等遊覽金蘭 暗有爲君主理邦國之意 乃作歌三首……初名玄琴抱曲 第二大道曲 第三問群曲(遺事)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
14. 景哀王遊鮑石亭 令美人奏此曲……聲調淒咽 識者比玉樹後庭花(文獻備考) 景哀王遊鮑石亭 令美人奏繁花曲 其詞云 [繁花曲]
15. 新羅既納土國除 阿干神會 罷外署還 見都城離潰 有黍離離嘆 乃作歌 歌亡未詳(遺事) [亡國哀歌]
16. 新羅昇平日久 政化醇美 靈瑞屢見 鳳鳥來鳴 國人作此歌以美之(麗史) [東京]
17. 安康歌一篇 東京頌禱之辭 臣子之於君父 卑少之於尊丈 婦之於夫 通用之歌樂(文獻備考) 安康曲 樂府有安康曲 東都頌禱之歌也 臣子之於君父 卑少之於尊長

6 古詩歌의 題名 (尹榮玉)

- 婦之於夫 皆通用之 所謂安康 即東京屬縣也 亦名東京 統於大也(大東韻玉) 東京
頌禱之歌也 或臣子之於君父 卑少之於尊長 婦之於夫 皆通 其所謂安康即雞林府
屬縣 而亦名東京 統於大也(麗史) [安康歌(曲)]
18. 世傳羅王父子久相失 及得之 築菴相見 極父子之歡 作此以歌之 號其菴曰 利見
(麗史) [利見菴歌]
19. 木州孝女作……作是歌以自怨(麗史) [木州歌]
20. 余那山在雞林境 世傳書生居是山 讀書擢第 聯婚世族 後掌試設宴 其昏家喜而歌
之 自後掌試者設宴 先歌此焉(麗史) [余那山]
21. 長漢城在新羅界漢山北漢江上 新羅置重鎮 後爲高句麗所據 羅人舉兵復之 作此
以紀其功焉(麗史) [長漢城]
22. 方等山在羅州屬縣長城之境 新羅末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女多被擄掠 長日縣之
女亦在其中 作此歌以諷其不即來救也(麗史) 半登山曲 高敞縣有半登山 新羅末盜
賊大起 據此山 良家女子多被掠 長日縣之女亦在其中 作歌以諷其夫不即來救 曲
名方等山 方等語轉爲半等云(文獻備考) [方等山]
23. 來遠城在靜州 即水中之地 狄人來投 置之於此 名其城曰來遠 歌以紀之(麗史)
[來遠城]
24. 延陽有爲人所收用者 以死自效 比之於木曰 木之資火 必有戕賊之禍 然深以收用
爲幸 雖至於灰燼 所不辭也(麗史) [延陽]
25. ……生以書示女家 遂歌此曲 父母異之 曰 此精誠所感 非人力所能爲也. 遣其壻
而納生焉(麗史) [溟州]
26. 長沙人 征役過期 不至 其妻思之 登禪雲山 望而歌之(麗史) [禪雲山]
27. 無等山光州之鎮 州在全羅爲巨邑 城此山 民賴以安樂 歌之(麗史) [無等山]
28. 求禮縣人之女有姿色 居智異山 家貧盡婦道 百濟王問其美 欲內之 女作是歌 誓死
不從(麗史) [智異山]

위의 記錄들에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 兜
率歌와 9. 身空詞腦歌는 類型에 의한 題名이며, 4. 憂息曲 8. 無尋 11. 玄
琴抱曲 12. 大道曲 13. 問群曲 14. 繁花曲 15. 亡國哀歌는 意圖에 따른 題
名임을 알 수 있다. 3. 勿稽子歌 5. 實兮歌 6. 奚論歌는 人名에 따른 題名
이며, 10. 鸚鵡歌는 高句麗 瑠璃王의 〈黃鳥歌〉와 마찬가지로 狀況과 比
喩에 의한 題名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이와 같은 作品들은 上層의 治者階層과 相關性을 더 많이 갖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7. 陽山歌 16. 東京 17. 安康 18. 利見菴 19. 木州 20.

余那山 21. 長漠城 22. 方等山 23. 來遠城 24. 延陽 25. 溟州 26. 禪雲山 27. 無等山 28. 智異山 등의 作品은 그 作品이 生成된 空間的 背景인 地名을 따서 題名했음을 알 수 있는데, 〈利見峯歌〉나 〈陽山歌〉와 같은 特異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 作品은 주로 一般民庶의 哀歡과 相關性을 더 많이 지닌 一種의 民謠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生産 당시는 어떤 特定한 狀況과 상관되어 있었으나 그 狀況에 處한 特定人의 情緒가 個人的인 것이 아니라 地域共有的인 것이기에 民謠로 發展하게 되었다. 特히 高句麗나 百濟의 노래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러한 事情은 더욱 確實해진다.

마지막으로 注目할 것이 2. 會蘇曲이다. 한 女人의 嘆聲인 “會蘇會蘇”가 그 소리가 哀雅해서 後人이 그 소리에 따라 노래지어 〈會蘇曲〉이라 했으니 이 題名은 노래의 後敍를 딴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代表的인 民謠라고 보겠다.

그래서 歷代 史記의 編纂者들은 이와 같은 作品들을 樂에 編入시키기는 하였으나 正樂으로 認定하지 않고 一般民庶의 哀歡이 서려 있는 民謠의 性格을 認定하여 治民에 資코자 採集하였던 것이고, 그 一部는 樂으로 編入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4. 高麗史 樂志 高麗俗樂의 境遇

「高麗史」의 〈樂志〉에는

夫樂者所以樹風化象功德者也 高麗太祖草創大業而 成宗立郊社躬締衿 自後文物始備而典籍不存 未有所考也 睿宗朝宋賜新樂 又賜大晟樂 恭愍時太祖皇帝特賜雅樂 遂用之于朝廟 又雜用唐樂及三國與當時俗樂 然因兵亂鍾磬散失 俗樂則語多鄙俚 其甚者但記其歌名與作歌之意 類分雅樂唐樂俗樂 作樂志

라고 밝히고 〈俗樂〉項에 “高麗俗樂 考諸樂譜載之 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用俚語”라 하고 모두 32篇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俗樂은 그 말에 鄙俚한 것이 많고 그것이 매우 甚한 경우에는 歌名과 作歌之意만을 記錄한다 하고, 32篇中 24篇은 俚語를 사용했다고 하니 여기서는 이 24篇을 가려내어 言及해 보기로 한다.

高麗俗樂 32篇은 다음과 같다.

高麗史 樂志 高麗俗樂

1. 舞妓(井邑詞) 諸妓歌井邑詞
2. 動動 妓二人……唱動動詞起句 諸妓從而和之……動動之戲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 然詞僅不載
3. 無尋 妓二人……唱無尋詞……無尋之戲出自西域 其歌詞多用佛家語 且雜以方言
4. 西京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意 作此歌 言仁恩充暢
5. 大同江 朝野無事 人民懽悅 以大同江比黃河 永明嶺比嵩山 頌禱其君
6. 五冠山 孝子文忠所作也……嘆其母老 作是歌
7. 楊州 土地平衍 富庶繁華 非他州比 州人男女 方春好遊 相樂而歌之
8. 月精花 月精花晉州妓也……邑人哀之 追言夫人在時不相親愛 以刺其狂惑也
9. 長湍 太祖巡省民風 補助不綴 與民同樂 民思其德 久而不忘 後王遊長湍 工人歌祖聖之德
10. 定山 定山……縣人作是歌 以樛木錯節比之 頌禱福祿也
11. 伐谷鳥 睿宗……廣開言路 猶恐群下不言 作此歌以諷誘之也
12. 元興 元興……邑人船商而還 其妻悅而歌之
13. 金剛城 顯宗收復開京 築羅城 國人喜而歌之 或復還開京 作是歌也 金剛城言其城堅如金之剛也
14. 長生浦 反倭寇順天府長生浦 濯赴援 賊望見而懼即引去 軍士大悅作是歌
15. 叢石亭 奇嶽所作也……登此亭 覽四仙之迹 臨望大海 作是歌也
16. 居士戀 行役者之妻作是歌 托鶉塘以冀其歸也
17. 處容 處容 每月夜歌舞於市 竟不知其所在 時以爲神人 後人異之 作是歌
18. 沙里花 賊斂繁重 豪強奪攘 民困財傷 作此歌 托黃鳥啄粟以怨之
19. 長巖 老人戒苟進 英哲諾之 後位至平章事 果又陷罪貶過之 老人送之作是歌以譏之
20. 濟危寶 婦人以罪徒役濟危寶 恨其手爲人所執 無以雪之 作是歌以自怨
21. 安東紫青 婦人以身事人 一失其身 人所賤惡 故作此歌 以絲之紅綠青白反覆比之 以致取舍之決焉
22. 松山 自太祖都開京 果世相承 國祚延長 歌之所由作也

23. 禮成江(兩篇) 其夫利之以妻注 頭綱一舉賭之 載舟而去 其夫悔恨作是歌……婦人亦作歌 後篇是也
24. 冬柏木 蔡洪哲以罪流遠島 思德陵 作此歌 王聞之 即日召還 或曰 古有此歌 洪哲就加正焉以寓己意
25. 寒松亭 此歌書於瑟底 流至江南 江南人未解其詞 光宗朝國人張晉公……作詩解之
26. 鄭瓜亭 內待郎中鄭叙所作也……叙在東來日久 召命不至 乃撫琴而歌之
27. 風入松 有頌禱之意……於終宴而歌之
28. 夜深詞 言君臣相樂之意……於終宴而歌之
29. 翰林別曲 此曲高宗時翰林諸儒所作
30. 三藏 忠烈王朝所作……男粧隊 敎閱此歌
31. 蛇龍 忠烈王朝所作……男粧隊 敎閱此歌
32. 紫霞洞 侍中蔡洪哲所作……日邀耆老 極懽乃罷 作此歌 令家婢歌之 詞皆仙語 盖托紫霞之仙 聞耆老會中和堂來 歌此詞也

※ 高麗俗樂 考諸樂譜載之 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用俚語

이 32篇中 〈舞鼓〉에서 妓女가 부른 〈井邑詞〉는 三國俗樂 百濟項에서 擧名되었고, 〈無尋〉에 대해서는 “無尋之戲出自西域 其歌詞多用佛家語 且雜以方言 難於編錄 姑存節奏以備當時所用之樂”이라 附記했을 뿐만 아니라 그 根源은 이미 新羅의 元曉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27. 風入松 28. 夜深詞 29. 翰林別曲 30. 三藏 31. 蛇龍 32. 紫霞洞은 그 歌詞를 記載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8篇을 除外하면 “皆用俚語”한 24篇이 남게 된다. 그런데 30. 三藏의 경우가 문제된다. <三藏>은 「樂章歌詞」에 전하는 <雙花店>의 一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 五冠山 16. 居士戀 17. 處容 18. 沙里花 19. 長巖 20. 濟危寶 26. 鄭瓜亭에서는 李濟賢이 解之한 作詩를 併記해 주고 있는데 <三藏>의 경우에는 27. 風入松 28. 夜深詞 등에서와 같이 歌詞를 바로 적고 <蛇龍>과 함께 解說을 붙여 “右二歌 忠烈王朝所作”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雙花店>과 <三藏>은 別個의 作品이라 看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雙花店>에서 <三藏>으로 分離되어 漢文으로 歌詞化되었거나 <三藏>에서 <雙花店>으로 俚語化하여 發展되었거나 하는 關係는 想定해 볼 수 있다.

「高麗史」〈樂志〉의 高麗俗樂 32篇中 俚語로 된 24篇의 詩歌 가운데 4. 西京 5. 大同江 6. 五冠山 7. 楊州 9. 長湍 10. 定山 12. 元興 13. 金剛城 14. 長

生浦 19. 長嚴 21. 安東紫靑 22. 松山 23. 禮成江 25. 寒松亭 등 15篇의 題名이 空間의 背景으로서의 地名 處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三國의 不傳詩歌의 境遇와 類似하다. 이와 같은 作品들은 그 地域 또는 處所와 관계되는 俗謠였던 것이 俗樂으로 認定된 것이라 하겠다.

8. 月精花 17. 處容 26. 鄭瓜亭은 作品의 主된 內容을 이루는 人物로 題名한 것들이다. 〈鄭瓜亭〉은 作者요 同時에 唱者이기도 하지만 그 作品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人物이기도 하다. 앞의 〈勿稽子歌〉의 경우와 같다.

11. 伐谷鳥와 24. 冬栢木은 앞의 〈黃鳥歌〉나 〈鸚鵡歌〉와 같이 比喻에 의한 題名이다.

18. 沙里花는 그 語意를 밝혀 보지 못했다. 혹 “沙里”가 “沙理院”과 相關 있는 地名이라 한다면 載寧平野 近處의 穀物이 豐盛하던 곳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다면 李濟賢의 解詩로 보아서 地域과 관계된 一種의 風謠라 생각된다. 20. 濟危寶는 狀況과 관계있는 題名이다. 16. 居士戀은 作品의 主題를 題名化한 것이다. 作歌之意로 볼 때 行役者의 妻가 그 지아비 居士를 그리워해서 부른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 動動은 新羅의 〈會蘇曲〉이 “會蘇會蘇”라는 哀雅한 音聲에서 따온 것처럼 “아으 動動다리”의 “動動”에서 따 온 題名임을 알 수 있다. 이 “動動”은 북소리의 擬音이다.

위에서 살핀 題名의 原理에 따라 現在 「樂學軌範」 「樂章歌詞」 「時用鄉樂譜」에 傳하는 高麗詩歌의 題名을 살펴보기로 한다.

5. 現傳 高麗詩歌의 題名

現傳 高麗詩歌

	樂學軌範	樂章歌詞	時用學樂譜	樂志麗史
1. 動動	○	○		○
2. 井邑詞	○			○
3. 處容歌	○	○		○
4. 鄭瓜亭	○			
5. 鄭石歌		○	○	
6. 靑山別曲		○	○	
7. 西京別曲		○	○	

8. 思母曲(엇노리)	○	○	
9. 雙花店(雙花曲)	○	○	○(三藏)
10. 履霜曲	○		
11. 가시리(歸乎曲)	○	○	
12. 風入松	○	○	○
13. 夜深詞	○	○	○
14. 翰林別曲	○		○
15. 漁父歌	○		
16. 滿殿春	○		
17. 維鳩曲(비두로기)		○	○(伐谷鳥)
18. 相杵歌		○	

※ 〈井邑詞〉는 麗史 樂志에서 百濟의 俗樂이라 하였으나 그 歌詞가 傳하기에 여기 함께 다룬다.

위의 表에서 보여 주는 18篇의 作品 가운데 12.風入松 13.夜深詞는 漢文 詩歌이다. 〈風入松〉은 詞牌의 名稱이기도 하며 晋代의 嵇康이 지은 琴曲 歌詞의 이름이기도 하다. 唐의 皎然的 다음과 같은 〈風入頌歌〉도 있다.

西嶺松聲落日秋 千枝萬葉風颼颼
美人援琴弄成曲 寫得松間松聲斷
續聲斷續清我魂 流波壞陵安足論
美人夜坐月明裏 含少商兮照清微
風何淒兮飄颼 攬寒松兮又夜起
夜未央曲何長 金徽更促聲泱泱
何人此時不得意 意若弦悲問客堂

〈夜深詞〉는 “懽醉夜深雞唱曉”라는 詞의 內容에서 따온 題名인 것 같다. 그런데 麗史 〈樂志〉에서 “風入松有頌禱之意 夜深詞言君臣相樂之意 皆於終宴而歌之也 然未知何時所作”한 것으로 보아 이 作品은 그 題名과 함께 傳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14.翰林別曲은 麗史 〈樂志〉에 俚語部分이 削除되고 記載되었을 뿐 아니라 “此曲高宗時翰林諸儒所作”이란 解說까지 併記되어 있다. 이 〈翰林別曲〉은 高宗時에 翰林諸儒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題名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勿稽子歌〉나 〈鄭瓜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題名은 作者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作者의 生活을 그 作品內容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翰林別曲〉은 8聯인데 第1聯에서 舉名된 人物이 공교롭게도 8名이기에 이 8名이 혹 各聯의 作者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나 이들이 琴儀와 門生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各分野에서 두드러진 이들 8名에 比肩될 琴儀의 門生으로서의 翰林諸儒가 그들의 得意한 生活을 노래한 것이다. 新羅의 〈余那山〉을 想起케 해 주는 作品이다.

15. 漁父歌와 18. 相杵歌는 그 類型에 따라 題名된 것이다. 이 高麗의 〈漁父歌〉는 磬岩에 依해 改撰되고 孤山의 〈漁父歌〉로 發展하여 瓶窩에 依해 그 類型이 依倣되어 〈伯夫詞〉가 제작되기도 했다. 〈相杵歌〉는 원래 절구질할 때 相勸하는 音聲으로서의 노래를 뜻한 것이다.

8. 思母曲 10. 履霜曲 16. 滿殿春은 主題를 나타낸 題名이다. 〈思母曲〉은 「時用鄉樂譜」에서는 “俗稱엇노리”라 하였다. 곧 “어머니노래”라는 뜻이다.

〈履霜曲〉의 “履霜은 “서리를 밟는다.”는 뜻으로 戒愼함을 나타낸다. 潘岳의 〈寡婦賦〉에 “自仲秋而在坎兮 踰履霜以踐氷”이란 句節이 있다. 〈履霜曲〉의 內容과 相關해 봄직한 것이다. 또 中國樂府의 琴曲歌詞의 名稱으로 “履霜操”가 있는데 尹伯奇와 韓愈의 作品이 있으나 〈履霜曲〉의 內容과는 相關이 없다.

〈滿殿春〉은 “別詞”라고 하였으나 그 뜻은 “滿殿한 春”이라 할 수 있고 “滿堂紅”과 같은 造語라고 생각한다. 類似한 말로 “滿堂春色”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북송아의 큰 가지를 일컫는 것으로 [畫史]에 “徐熙桃一枝 謂之滿堂春色”이라 설명해 두었다. 그런데 〈滿殿春〉의 第2聯에 “西窓을 여러히 桃花 發키두다.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키나다. 笑春風키나다.”란 和음을 말하고 唐의 崔護의 詩句 “桃花依舊笑春風”을 聯想케 해 준다. 이 桃花는 어쩌면 “錦繡山 니불안해 窮香각지”와 同一化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滿殿春〉은 作品의 主題를 象徵적으로 表現한 題名이라 할 수 있다.

5. 鄭石歌 6. 靑山別曲 7. 西京別曲 9. 雙花店 11. 가시리(歸乎曲) 17. 維鳩曲(비두로기)는 作品과 相關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鄭石歌〉 당아돌하 當今에 제상이다.

〈靑山別曲〉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西京別曲〉 西京이 아줄가
西京이 서울히마르는
〈雙花店〉 雙花店에 雙花사라 가고신탄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두로기〉 버두로기 새는 버두로기 새는
우루물 우루디
버꼭아이아 난 도해
버꼭아이아 난 도해

〈가시리〉를 「時用鄉樂譜」에서는 漢文化하여 〈歸乎曲〉이라 하고, 그와 반대로 〈維鳩曲〉을 「時用鄉樂譜」에서 “俗稱비두로기”라 하였으나, 이 두 작품은 오히려, 〈가시리〉 〈비두로기〉로 알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維鳩”라는 말은 「詩經」 召南篇 〈鵲巢〉의 “維鵲有巢 維鳩居之”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여섯 작품을 볼 때 그 題名の 根據가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靑山別曲〉이 좀 다르기는 하나 “靑山”이 體言이요 또 核心語가 되기 때문에 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麗史 樂志의 〈伐谷鳥〉가 〈維鳩曲〉일 것이라고 짐작들을 해 왔으나 위와 같은 題名の 原理로 볼 때 根源이 잊혀지고 傳唱되는 〈伐谷鳥〉에는 쉽사리 〈비두로기〉라는 題名이 붙게 마련이라는 사실도 認定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西京別曲〉은 地域의 背景과 상관되기에 例外가 되겠지만, 위의 작품들의 題名에서 깊은 意味를 찾으려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動動 2. 井邑詞 3. 處容歌 4. 鄭瓜亭에 대해서는 앞서言及이 있었기에 重言을 피한다.

6. 結 言

위에서 古詩歌의 題名에 대해 살펴보았다. 「三國遺事」에 傳하는 新羅의 詩歌는 그 類型, 狀況, 意圖나 狀況이나 意圖에 類型이 複合되어 題名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作品이 傳하지 않는 三國이나 高麗의 詩歌들에는 그것이 生成되거나 노래되어졌던 空間的 背景 곧 地名을 題名으로 삼은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一般民庶의 哀歡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俗謠라고 하는 民謠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史記 編纂者들은 俗樂으로 看做하였지만, 그것이 다 俗樂으로 採擇되었는지는 確認할 수 없다. 〈兜率歌〉를 樂의 始初라 하고 〈繁花曲〉이 鮑石亭의 宴會에서 불려지기는 하였으나 〈沙里花〉나 〈濟危寶〉같은 것이 俗樂歌詞로 採擇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樂學軌範」 「樂章歌詞」 「時用鄉樂譜」 등에 실려 있는 作品은 分明히 俗樂이라 할 수 있는데, 〈風入松〉 〈夜深詞〉 〈翰林別曲〉 〈漁父歌〉는 漢文詩歌이거나 漢文句에 國文이 섞인 歌詞로 識字階層의 所産이며 〈動動〉 〈井邑詞〉 〈處容歌〉 〈鄭瓜亭〉은 〈牙拍〉 〈舞鼓〉 〈鶴蓮花其處容舞合設〉의 樂에서 불려진 歌詞로 〈動動〉을 除外하고는 그 根源이 오래고 作歌動機나 그 歌意에 대해 說明이 되어 있다. 〈思母曲〉 〈履霜曲〉 〈滿殿春〉은 作品의 主題로 題名한 것이나 나머지 大部分의 作品들은 그 歌詞의 첫 語句를 題名으로 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이러한 作品은 그 根源이나 作歌狀況들이 잊혀진 채로 流傳해 오던 것을 俗樂歌詞로 採擇했음을 暗示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樂曲에 맞추어 歌詞가 調整되거나 改作된 部分 또는 樂音이 追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題名에 特別한 意味가 含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雙花店〉과 〈三藏〉의 關係에 特別한 관심을 갖게도 해 준다.